

나주 혁신도시 학생 증가에도 더디기만한 교육·편의 시설 조성

7750명→8670명...2년 새 921명·11.9% 증가 교육시설 단 2곳·병원 4곳·약국 3곳 증가에 그쳐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성장하면서 유아·청소년이 2년 새 900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생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은 줄거나 큰 변동이 없었다.

20일 전남도·나주시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가 조성된 빛가람동 교육(보육)시설 학생 수는 올해 10월 기준 8671명으로, 2년 전인 2020년(7750명)보다 11.9%(921명) 증가했다.

빛가람동 인구는 같은 기간 3만5543명에서 3만 9129명으로, 10.1%(3586명) 늘었다. 교육시설

학생 증가분은 전체 인구 증가분의 4분의 1가량(25.7%)을 차지한다.

교육시설 학생 가운데 초등학교생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혁신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생은 3818명으로, 2년 전(3337명)보다 14.4%(481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은 1245명에서 1545명으로 24.1%(300명) 늘었고, 고등학생은 445명에서 660명으로 48.3%(215명) 증가했다.

반면 올해 유치원생은 887명으로, 2년 전(1025명)보다 13.5%(-138명) 줄었다. 어린이집

원생은 1698명에서 1761명으로, 3.7%(6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혁신도시 교육시설은 66곳으로, 2년 동안 2곳 늘어났다.

민간 어린이집이 4곳 감소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5곳 늘고 가정 어린이집이 1곳 더 생기면서 교육시설이 총 2곳 증가했다.

혁신도시 어린이·청소년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은 성장세가 더디기만 하다.

나주 혁신도시 금융기관은 28곳으로 2년 전과 같았고, 병·의원은 4곳 늘어난 35곳이 운영되고 있다. 약국은 3곳 늘어난 13곳, 숙박시설은 10곳으로 2년 전과 같았다.

이전 공공기관 16곳 외에 최근 2년 사이 한전 MCS(가)가 들어서며 공공기관 29곳이 자리 잡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의 김장 나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가운데) 임직원 50여 명은 20일 나주시 미래관에서 배추김치와 흥갓김치 2100kg를 담고 광주·전남 복지시설 13곳에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사학연금 'TP금융지식나눔' 교육기부

광주 세광학교 등 2곳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광주지역 학교에서 'TP금융지식나눔' 교육기부 활동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이달 9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하고 19일에는 광주세광학교를 찾았다.

이들 학생에게 금융지식을 전하고 진로를 상담하는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광주여자상업고교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각 연금에서 하는 일, 사학연금 신규 채용 절차, 금융 및 금융투자 개념이해, 금융진로 교육과 상담 등으로 수업이 이뤄졌다.

세광학교 교육은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 전공과반 등 수준별로 나누어 진행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초등반은 놀이 방식으로 용돈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중·고등반에서는 금융회사와 금융 직업인들을 소개하고, 전공과반에서는 금융회사의 상품 이해 돕기와 장애인 연금 소개 등을 진행했다.

TP금융지식나눔 교육사업은 지역 학생들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달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13년부터 5754명이 교육을 받았다.

주명현 이사장은 "이번 대면 교육을 통해 금융권 진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고, 특수 학교 학생들에게는 실제 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전달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학연금의 업(業)을 활용한 금융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PS, 에너지 비상상황 "에너지 절약 적극 동참합시다"



한전KPS 직원들이 나주 본사에서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출근길 운동을 하고 있다. <한전KPS 제공>

출근길 '에너지 다이어트 10' 홍보

한전KPS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10'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출근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운동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나주 본사와 전국 사업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발·송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실내 난방 1도 이하 유지 ▲전국 사업소 권역별 난방기 순차 가동 중지 ▲업무시간 중 개인 난방기 사용 안 하기 ▲광고나 장식 조명의 심야 소등 ▲

실내조명의 업무시간 30%·전력피크시간 50% 소등 등의 사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 본사와 전국 사업소에서 사내 업무망과 개별 문자메시지 전송 등 방식으로 홍보물을 나누고 개별 사업소에서 정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설명하는 자리를 열기도 했다.

김갑식 한전KPS ESG혁신처장은 "정부에서 에

너지 비상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절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에너지 절약은 ESG경영의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전KDN,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

4개월간 ESG 경영활동 등 홍보

한전KDN '대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한 28명이 4개월간 활동을 마치는 해단식을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열었다.

"2022 한전KDN 대학생 홍보대사"에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18명과 수도권 10명 등 28명이 참여했다.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이들은 한전KDN의 역할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개선하는 ESG 경영활동 등을 소개해왔다.

한전KDN은 코로나19과 겨울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홍보대사들이 그동안 활동을 보고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시상하기도 했다. 한편 한전KDN이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실문조사를 해보니 대학생 홍보대사 활동이 한전KDN 인지도와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92.7%에 달했다.

에너지 ICT 공기업인 한전KDN의 호감도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는 인상을 주는 효과에도 각각 80% 넘는 응답자가 긍정적이라 답변했다.

한전KDN 직원들은 대학생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진로 상담을 하고 취업 역량 높이기에도 도움을 줬다.

한전KDN 관계자는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은 한전KDN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시선의 공감 소통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며 "다음 세대의 실질적 주역이 될 젊은 대학생 홍보대사의 활동 지원과 소통을 통해 에너지 ICT 전문 공기업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 안성 죽산한미당 |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